

企劃論文

한국학 정보 사업의 의의

이태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원장, 서양고대철학 전공
taesoo@snu.ac.kr

I. 머리말

II. 텍스트와 정보

III. 텍스트 비판의 방법론

IV. 맺음말

I. 머리말

인류의 문명은 인간이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 이룩한 성취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낡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모두 그런 시간의 방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부단히 그 방향을 거스르려는 비상한 노력을 해왔다. 개체 인간으로서는 그래 보았자 그저 수명을 약간 더 늘리는 것이 고작이고,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 연장을 대신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런 방식으로 영원을 희미하게나마 모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자신이 생각한 것, 느낀 것, 알아낸 것 등을 표현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 생명체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존속할 수 있게 보존하는 방도를 강구해냈다. 영원에 다가간다고 하기에 는 턱없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생물체 중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 정도의 성과라도 확보해낼 수 있었다. 예컨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생각해보면, 창건의 주역으로 알려진 김대성은 70년 정도를 살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1,000년을 넘는 세월을 견뎌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보존 노력 여하에 따라 그것은 앞으로도 또 천년만년 신라인들의 예술혼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후대에 계속 증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희망한다. 석굴암과 같은 문화재가 그대로 보존되기를 희망하는 기간이 곧 우리가 인류 문명의 존속을 희망하는 기간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증거인 문화재를 무슨 이유로든 스스로 파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명의 종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화재라는 명목하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이 문명의 증거는 아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유형·무형의 귀한 문화유산이 인류 문명의 실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중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자로 기록된 문화유산이다. 문자활용이 문명성립의 필수적인 전제는 아니지만, 인간이 문자를 쓸 줄 몰랐다면 틀림없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말에만 의존하는 경우 인간의 의사소통 범위는 일단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말소리의 가청 가능 반경 내로 제한된다.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들은 것을 기억에 담아두었다가 다시 말소리로 재생하는 구전(口傳)뿐이다. 그러나 “……라고 하더라”라는 식의 전언은 항상 그 정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정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경우라도 기억의 용량이나 내구성의 한계 때문에 애당초 발화된 것 중 상당 부분은 구전과정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망실되고 만다. 그러나 시각적 기호인 문자는 발화와 동시에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휘발성 매체에 실려야 하는 말소리와는 달리 아주 견고한 매체에 기록되어 전달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문자를 사용하면 불안정한 기억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대폭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단한 목판에 팔만대장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이 온 누리에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알려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구전으로 옮기면서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에서 우리는 문자 기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분량이나 시공간적 전달 범위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확장에서뿐 아니라, 그와 같은 확장의 결과로 질적인 도약의 계기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팔만대장경과 같이 방대한 내용은 구전 이외의 전달 방도가 없었다면 세상의 빛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인간의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갖추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로 문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보존된 것의 축적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전대의 것을 그저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 사용이야말로 오늘날 인류 문명이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오늘날 인류 문명의 특징을 이루는 예술, 학문, 종교 등의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가 문자의 도움 없이 가능했을까를 자문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문자 사용의 의의가 그와 같으니 문자는 문화재의 보존과 나아가 창조까지 가능하게 해준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문명의 수준을 증거해주는 귀한 문화재로 대접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II. 텍스트와 정보

여기서 문자도 귀한 문화재라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는 까닭은 오늘날 워낙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문자 기록물이어서 별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광고지, 신문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어엿한 서책의 행세를 하지만 실은 우수마발(牛渡馬勃)에 불과한 잡문이 너무 흔하다. 게다가 문자 자체가 귀한 것이라기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책을 읽는 의의라는 생각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런 상식이 틀린 것은 아니다. 책을 접하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식을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자 기록물은 일단 텍스트를 구현한 물리적인 대상이기에 소위 뜻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할 정확한 진상이다. 텍스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오늘날까지 많은 학자들이 거의 형이상학 수준의 사변적인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문자라는 상징적 기호의 일정한 배합이라는 잠정적인 규정 정도만 해놓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로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를 곧 그 텍스트를 담고 있는 물리적 대상인 책과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령 당장 이 종이 위에 쓰여진 두 단어 ‘사람’과 ‘사람’을 놓고 둘 사이에 공통된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런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두 단어는 모두 같은 글자, 즉 기호의 배합으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해 그것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단어는 같은 기호의 배합을 각기 다른 위치에서 물리적으로 따로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각각 다른 하나로 보고 둘로 세어 ‘두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둘은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책, 즉 우리가 한 권, 두 권 셀 수 있는 물리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는 책이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텍스트를 일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도 텍스트의 매개 없이 그냥 뜻을 다룰 수는 없다. 뜻은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텍스트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리적 구현물과 추상적인 뜻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 텍스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¹⁾

그러면 정보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일단 책과 같은 구체적인 물리적

구현물도 아니고 저자가 생각해냈고 독자가 읽어서 이해하는 뜻과도 구별되는 것, 즉 텍스트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한 저자가 생각한 뜻은 텍스트를 통해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현되어야 남들이 읽을 수 있다. 작가가 쓴 원고도 그런 물리적 구현의 한 예이며, 그것을 받아 편집, 출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작해내는 책들도 그런 예다. 문제는 물리적 구현의 과정에서 텍스트로부터 일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실현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지 텍스트로부터의 일탈이 전혀 없는 물리적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 고전으로 불리는 귀한 텍스트는 대체로 먼 옛날 어느 현인의 머릿속에서 태어나 어떤 방식으로든 물리적으로 구현되고 그것이 계속 복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긴 복사과정 중에 텍스트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가 고전으로 여기는 것의 많은 작품은 인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저술된 것들이다. 그런 작품이 오늘날까지 보존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릴레이식의 필사(筆寫)를 통한 전승 덕택이다. 그런데 필사과정에서 잘못 베끼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번 잘못 베낀 부분이 포함된 필사본이 다른 필사본의 저본(底本)으로 쓰이게 되면 오류는 유전자처럼 그냥

-
- 1) 가령 요즈음 출판사에서 교정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저자의 자필 원고에 “두 더하기 둘은 넷이듯이 확실하다”라고 쓰여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면 얼른 ‘둘 더하기’가 ‘두 더하기’로 잘못 쓰였다고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둘 더하기’와 ‘두 더하기’ 중에서 어떤 것이 소위 원저자의 텍스트에 속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답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만일 원저자가 아무런 의도도 없이 무의식 중에 실수로 후자를 쓴 것이 확인되면 전자가 텍스트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어떤 연구자가 그 저자의 무의식적인 버릇으로 자주 같은 오기를 한다는 사실에 의미를 둔다면 그의 입장에서 문체의 교정이 텍스트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아가 만일 저자의 의도가 굳이 ‘두 더하기’로 쓰는 것이었다면—그 의도가 어떤 것이든—바로 그것이 텍스트의 일부이고 누구도 그것을 교정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텍스트의 정체를 결정하는 데 최종적인 심급(審級)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소위 저자의 의도(authorial intention)가 무엇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 아주 명료한 내용을 가진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한 저자의 위치에 대한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비판적인 논의는 텍스트 비판(textual criticism)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전통적인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학자들의 발언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아주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그것을 실제의 텍스트 비판 작업에 필요한 일종의 가설적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차피 저자의 의도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고전 작품에 대한 텍스트 비판 작업에서 저자의 의도란 사실상 작업의 목표를 교정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의도를 설정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G. Tanselle(1995)을 참조할 수 있다.

계승될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필사의 오류까지 더 보태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만일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제작되는 필사본은 시간이 갈수록 원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먼 옛날부터 귀한 것으로 인정받아온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텍스트의 긴 전송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들은 일찍부터 필사하면서 생긴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아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텍스트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왔다. 물론 원저자가 직접 쓴 자필본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원본과의 거리를 가능한 한 좁혔다고 추정되는, 즉 가능한 한 원래 텍스트에 충실한 판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것처럼 남아 있는 판본을 검토하면서 수행하는 복원 작업을 보통 텍스트 비판(textual criticism)이라고 한다.²⁾ 정보이란 다름아니라 텍스트 비판의 작업 결과로 비판 시점에서 원저자의 텍스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 판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실 이 시점에서 한국학의 정보 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좀 새삼스러운 감이 있다. 정보를 확립하는 일은 인문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문학도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비로소 정보 문제를 논의하려 든다면 그동안 정보도 확립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오래 인문학을 했다는 말이니 새삼스러움에 더해 부끄러운 생각까지 든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실제로 그사이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은 대개 출발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왔다. 학계의 일각에서 텍스트의 복원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의 의의는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구, 문구에 매달려 있는 것은 소인배의 일이고 대학자는 문자 배면의 뜻과 직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대부분 인문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일차적인 과제보다는 이차 작업,

2) '텍스트 비판'보다는 '텍스트 비평'이라는 번역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literary criticism'을 '작품 비평' 또는 '문학 비평'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textual criticism'이 그와 짝을 이루는 작업이라는 점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라면 '텍스트 비평'이라는 번역어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비판본(critical edition)', '비판 장치(critical apparatus)' 등 몇 가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학계 일각에서 '비판'이라는 번역어가 쓰이기 시작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텍스트 비판'이라는 번역어를 그냥 쓰기로 하겠다. 이 경우 '비평'이나 '비판'이나 뜻 차이는 없다고 본다.

즉 문헌의 해석이 자신이 맡아야 할 본령의 일이라고 여긴다. 특히 우리 인문학계가 외국에서 수입된 문헌의 해석에 더 열중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진 것 같다. 외국 문헌의 경우 정본을 확립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곳에 소속된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로서는 텍스트 비판의 직접적인 연구 자료인 필사본을 소장한 곳의 국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필사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영국인들이 맡아야 할 일이고 그 부분에 관한 한 우리는 손님과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석굴암과 같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을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사실상 같은 종류의 반응이다. 아무튼 우리는 그동안 서양의 인문학을 수입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인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서양인들이 텍스트 비판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결과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 너무 익숙해 지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아예 텍스트 비판이 인문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까지도 거의 의식하지 않게끔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서야 정본 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인 조명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게 된 사정에는 이러한 우리 인문학의 문제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본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문학은 해석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감상문 쓰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글쓰기일 뿐 학문으로서의 성격은 부실한 후진적인 분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텍스트를 복원하는 일은 학문적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일로서 성립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다. 중국에서 훈고학이 시작된 것이 기원전 3세기경이다. 그때는 문자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필사의 전승이 이미 충분히 길게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분서갱유와 같은 참사도 있었던 터라 당시 학자들로서는 그때까지 보전되어 온 중요한 문헌의 판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고대 그리스 고전시대의 수사학, 문학, 철학 분야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에 큰 규모의 도서관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도서 관리가 시작된 것과 때를 같이하는 일이었다. 그때 그 관리

책임을 맡은 학자들이 문헌학의 기틀을 다져놓은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당시 도서를 관리하면서 처리해야 할 여러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가 바로 진본과 위본을 구별하는 것이었는데, 그 구별은 당연히 관리 대상인 책이 원저자의 텍스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에 포함되는 일이다. 학문적으로 엄격한 텍스트 비판 작업을 특별히 촉진한 계기는 동서양이 대충 비슷한데, 어쨌든 한번 시작된 텍스트 연구의 전통은 양쪽 다 역사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우리의 정보 사업이 학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려면 당연히 이 전통에, 즉 동서양의 텍스트 연구 전통에 다 같이 확실하게 선을 대면서 착수해야 한다. 복원 대상 자체가 동양의 것인 만큼 동양 특유의 방법에 따라 텍스트에 접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양 텍스트 연구 전통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은 취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연구의 결과물로 내놓게 될 정보를 현대적인 서책의 형태로 편집, 출판할 생각이라면, 서양 전통 내에 축적된 노하우를 참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을 넘어서 필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1,000년이 넘는 동서양의 텍스트 연구 전통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내 정보 사업을 하겠다면 그보다 더 우둔한 짓이 없을 것임은 틀림없다.

III. 텍스트 비판의 방법론

정보 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인력은 대체로 동양의 텍스트 연구 전통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그들은 서양의 텍스트 연구 전통에 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뜻에서 서양의 텍스트 연구 전통을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 서양의 텍스트 연구 전통에 관한 본격적인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보다는 서양의 전통에서도 취해올 장점이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리려는 것이 언급의 의도다. 서양의 텍스트 연구 전통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필사의 전승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오래된 고전 텍스트에

대한 연구다. 물론 인쇄기가 발명된 후나 20세기에 들어와 컴퓨터 편집이 가능해진 때에 저술된 작품도 텍스트 비판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학 분야의 정보 사업 대상으로서 최근의 작품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무게 중심을 역시 고전 또는 고전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 고문헌에 두어야 하느니 만치 서양에서도 고전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일차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전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문헌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이 부분은 얼른 지나갈 수 있겠다. 이 시기의 문헌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로 꼽히는 제노도토스(Zenodotos)와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os, BC 310-230) 등의 글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수행한 연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설정하여 텍스트 비판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 중에는 내용상 너무 이상화된 저자의 의도를 전제하고 설정된 것이 적지 않아서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그들에 의해 시작된 연구의 전통은 고대 말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중세에도 동로마 지역, 즉 비잔틴 문화권에서는 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 서로마 지역, 즉 서구에서는 몇 세기에 걸친 암흑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의 맥이 단절된다. 중세의 서구는 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칼 대제의 통치하에서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문자 문명의 빛이 비치는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고전에 대한 학문적인 텍스트 비판의 전통이 제대로 되살아나기까지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다. 중세의 기여는 그보다는 정성스러운 필사 작업을 통해 문헌 전승의 맥만큼은 계속 이어주었다는 데에 있다. 오늘날 서양이 보유하고 있는 필사본 중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을 제외한 거의 전부가 중세 수도원에서 수사들의 손으로 제작된 것이다. 텍스트 비판의 전통이 다시 살아난 것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14세기의 이탈리아에서였다. ‘인문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페트라르카(Petrarca)를 비롯한 르네상스 운동의 주역들은 모두 고대문학이 그리던 세계에 심취해 있던 인문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동경했던 그 세계를 정확한 그때의 언어로 기술한 텍스트를 통해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필사본을 입수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 뒤 르네상스 운동은 알프스

를 넘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까지 서구 전역에 전파되었고 신뢰할 만한 필사본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좀 더 조직적으로 정비되어갔다. 근대 서구의 고전문헌학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 정비과정을 점점 세련되게 발전시켜간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과정은 드디어 19세기에 ‘라흐만(Lachmann)의 방법’이라는 텍스트 비판의 표준적인 방법이 마련됨으로써 일단 완성단계에 도달한다. ‘라흐만의 방법’이란 독일의 고전문헌학자 라흐만의 이름을 빌려서 명명된 방법인데, 실제로 그 방법이 마련되는 데에 라흐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법의 모든 내용을 그가 처음으로 창안해낸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그 이전에 활동했던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기여한 몫도 적지 않다. 라흐만의 이름은 르네상스 이래 수세기 동안의 노력이 이룬 것들의 총화를 표시하는 간판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흐만의 방법은 그 요체가 필사본을 자료로 하여 비판본(critical edition)을 구성해내는 몇 개의 단계로 되어 있다. 그 첫 단계는 필사본의 수합(coll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현존하는 필사본들을 가능한 다 수집하는 일을 한다.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내용을 잘 몰라서 진본인지 위본인지 불확실해도 필사본의 소재지나 형태, 분량 등과 같은 해당 필사본과 관련된 외곽적인 정보, 즉 필사본학(codicology)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한국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많은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판본이 남아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우선은 작품의 필사본을 포함하여 간행된 모든 종류의 판본에 관한 정보를 얻어 그 정보를 목록의 형태로 정리하는 일에 적지 않은 수고를 들여야 할 것이다. 필사본 수합의 다음 단계 작업은 그 모든 필사본을 해독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일(recens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서체학(paleography)의 지식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 지식도 지식이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글자를 하나씩 대조해가며 필사본들의 이동(異同)을 찾아내는 끈기와 꼼꼼함이다. 그와 같은 필사본 간의 대조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복사과정에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베낀 것인지 또는 상호 독립적인 것인지 등을 일단 확인해내고 확인된 결과에 의거해 저본과 복본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 필사본들의 계보(stemma)를 수립한다. 이 계보는 결국 모든 현존하는 필사본의 원조상에 해당하는 원본(archetypus)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원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을 찾아내도 아직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검토판정(examination)과 수정(emendation) 작업의 단계가 남아 있다. 필사본의 해독·검토 과정에서 위본이나 계보에서 배제해도 좋을 불필요한 판본은 다 정리되고 원본의 텍스트만 순수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구나 문구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남겨둘지 말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연구자가 필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자신이 추측해낸 새 자구로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해 뜻이 통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연구자마다 수정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수정된 부분까지 포함한 것을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원본이라는 것은 원저자가 의도했던 텍스트를 담은 판본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필사본을 근거로 복원된 것으로서 텍스트 비판 작업을 통해 원저자의 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텍스트를 담은 판본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다. 문헌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그 최대치는 소위 비판본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관례다. 비판본은 다른 말로 연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구자가 자신이 찾아낸 원본의 텍스트와 함께 필사본의 검토과정에서 자신이 처리한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비판 장치(critical apparatus)를 포함한 것이다. 이 장치를 통해 비판본을 낸 연구자의 학문적 작업의 내용이 전문학계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보 사업도 대체로 그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 결과물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 사정에 맞게 각 단계의 세부 작업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서양에서 통용되었던 라흐만의 방법이 어떤 경우에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자 만능의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방법은 그 방법대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도 근세부터 인쇄를 통해 책을 발행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헌학적 방법을 원용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통은 인쇄기술을 활용하면서 원본에서의 일탈이 없거나 최소화되리라고 기대하겠지만 사정이 꼭 기대한 것과 같이 전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정본과 관련된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예컨대 '리어 왕'의 텍스트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 소위 복수 정본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³⁾ 이런 문제와 더불어 그와 연관된 또 다른 여러 문제가 오늘날까지 영문학계의 텍스트 비판에 종사하는 학자들 사이에 계속되는 다분히 현학적인 논의의 발단을 만들어놓았다. 한국학의 정본 사업에서도 라흐만식의 표준적인 방법 이외에 근세 이후 텍스트 비판의 과제를 놓고 서구학자들이 벌이는 논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은 표준적인 방법부터 참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임은 틀림없다.

IV. 맺음말

끝으로 정본 사업에 텍스트 전산화 사업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 텍스트의 출판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이진법 코드의 텍스트를 기본으로 놓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지상명령이라고 해도 좋다. 이진법 코드는 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음의 개입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텍스트의 물리적인 구현을 시도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최소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진법 코드를 대상으로 기계적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검색, 통계 처리, 그 외의 여러 실험 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본을 확립하는 수고의 결과를 종이책 안에 마치 얼어붙어 있는 물리적 대상처럼 담아놓

3) 이런 문제는 연극처럼 연행(performance)을 기본으로 하여 쓰인 텍스트의 경우에는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다. 서양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오래된 텍스트로 알려진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아직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소리의 텍스트를 확립하려 들면 같은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는 라흐만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은 원칙적으로 없다. 라흐만의 방법은 저자와 원래의 텍스트에 관해 너무나 본질주의적인 단순 가정 위에 고안된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고 끝내는 것은 시대착오적 과오다. 그 수고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온라인의 공간 안에 자리를 잡게 해주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온라인의 공간 안에 자리 잡는 방식을 표준화해야 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이미 TEI/SGML의 표준안이 확립되었고, 그 뒤에는 그것이 다시 TEI/XML 표준안으로 개정되어 통용됨으로써 텍스트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더 이상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면 바로 이 대목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텍스트 전산화는 결코 전통적인 문헌학적 작업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헌학적인 정신을 더 뚜렷하게 살릴 수 있고, 근세 이후 제기되었던 여러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도 어느 정도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온라인상에 표준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정보는 비판본의 모습을 좀 더 편리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종이책의 한구석에 웅색하게 자리 잡은 비판 장치를 별도의 윈도우에 담아 시원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비판본은 원래 복수 윈도우의 집합체라고 이해해도 좋다. 텍스트 연구 자체가 복수 윈도우 앞에서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작업이다. 그런데 복수 윈도우의 사용 효율은 전산화를 통해 가능하게 된 하이퍼텍스트 기법을 통해 아주 바람직한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정보 사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도 점점 변형되고 훼손, 마멸되어갈지 모르는 정보 사업의 바탕 자료인 판본들을 보존하는 조치가 빨리 앞당겨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시작하고 난 뒤 이 글에서 주마간산 격으로 언급한 내용은 각 항목별로 좀 더 깊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논의에는 서양의 고전문헌학이나 현대의 텍스트 비판 이론을 공부한 우리나라의 인문학도들이 참여해서 한국학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실도 물론 귀중한 것이지만, 그 결실을 얻기 위해 협업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곧 우리 인문학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인문학이 좀 더 학문적으로 엄격한 모습을 갖추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wers, F., *Bibliography and Textual Criticism*. Oxford, 1978.
- Chaudhuri, Sakunta, *The Metaphysics of Text*. Cambridge, 2010.
- Greetham, D. C. ed., *Scholarly Editing, A Guide to Research*. New York, 1995.
- Jäger G., *Einführung in die Klassische Philologie*. München, 1975.
- Maas, P., *Textkritik*. Leipzig, 1927.
- Pfeiffer, R.,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1300 to 1850*. Oxford, 1976.
- Solomon, J. ed., *Accessing Antiquity: The Computerization of Classical Studie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3.
- Tanselle, G. Thomas, "The Varieties of Scholarly Editing," *Scholarly Editing:
A Guide to Research*, ed. Greetham, 1995.
- West, M., *Textual Criticism and Editorial Technique*. Stuttgart, 1973.

국 문 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판, 간행되고 있는 우리 고전의 판본 중에는 엄정한 텍스트 비판의 과정을 거쳐 정본으로 확실히 인정받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이 오랫동안 오로지 텍스트가 담고 있는 뜻 자체를 해석하는 일만이 인문학의 본령에 속하는 것이고, 텍스트 연구가 지닌 의의를 잘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탓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문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텍스트가 원저자의 텍스트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필자는 텍스트 연구의 의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텍스트의 의미와 텍스트의 전승과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서양의 고전문헌학 학자들이 고전의 출판, 간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 연구를 해왔는지 소개하기 위해 주로 19세기 말에 확립된 라흐만의 방법을 중심으로 텍스트 비판 방법을 주제로 삼아 논의를 이어간다. 라흐만의 방법을 구성하는 작업들, 즉 필사본의 수합, 독해와 대조, 필사본의 계보 수립, 원본의 추정과 검토, 수정, 비판본의 구성과 같은 작업 내용을 참조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전에 대한 텍스트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투고일 2012. 6. 2.

수정일 2012. 8. 2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텍스트(text), 매체(medium), 텍스트 비판(textual criticism), 필사본(codex), 원본(archetypus), 비판본(critical edition), 연구 편집(scholarly editing), 라흐만의 방법(Lachmann's method)

